불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日류코쿠 대학.
불교 SDGs 활동 이어가

박영빈 객원기자



1639년, 서본원사에 학인스님들을 교육하는 강원으로 시작한 류코쿠 대학. 현재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불교계 종합대학이다. 사진출처=워커 플러스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일본의 한 불교계 대학이 이 국제적으로 설정된 SDGs에 대하여 '불교 SDGs'를 실천해 화제다. 지난 10월 26일, 일본의 '워커 플러스', '야후 재팬 뉴스' 등은 류코쿠(龍谷)대학의 활동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SDGs는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결의한 의제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인류 공동의 목표를 말한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SDGs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교토에 소재한 정토진종 종립대학인 류코쿠 대학은 이 SDGs가 불교의 가르침과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 독자적인 '불교 SDGs'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류코쿠 대학측은 "SDGs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섭취불사(攝取不捨)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섭취불사란 〈관무량수경〉에 등장하는 말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고통받는 중생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류코쿠 대학은 이 섭취불사의 정신에 기반한 불교 SDGs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창업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창업을 보조하고 있다. 류코쿠 대학측은 "불교와 기업은 얼핏 보아서는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불교의 가르침을 근간하여 사업을 일으키고 그 이익으로 사회에 공헌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류코쿠 대학은 정토진종의 신도로 실제 근세에 시작하여 현대에 대기업으로 발전한 상인들의 예시를 들었다. "신도인 상인들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이 모두 좋아야 한다는 '3가지 좋음'을 장사의 이념으로 내세웠다"며 불교의 정신을 생활에서 실천한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류코쿠 대학의 지원을 받아 불교 SDGs를 실천하는 한 사회적 기업은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이를 이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를 창업한 타케무라 유키나 대표는 "유기농 채소를 통해 자연환경과 음식을 먹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창업의의를 전했다. 타케무라 대표는"유기농업은 화학비료를 사용했던 땅을 다시 되살리는 것부터 시작하기에 많은 농가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상품도 높은 가격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농가들을 지원하여 유기농업이 확산되게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곳에서 발매한 유기농 이유식은 월 1만 개가 팔리는 등 인기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수익이 더 많은 유기농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류코쿠 대학은 현재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개개인이 불교 SDGs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측은 "SDGs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빈곤, 교육격차, 젠더문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불교의 사회참여법에 대해 다방면으로 접근하겠다"며 향후 목표를 시사했다.

중국 사찰들, 공산당 영화 강제 상영

당 선전 영화 '장진호 전투' 스님 강제 관람

종교를 통제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른바 '중국화' 정책으로 인해 일부 사찰들이 스님들에게 공산당을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월 11일 종교 · 인권 관련 인터넷 잡지 '비터윈터' (Bitter winter)는 "사찰들은 '공산당 역사에 대한 이해'를 명목으로 공산당 관련 영화 관람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며 일례로 톈진 화성사에서 10월 29일 진행된 공산당 관련 영화 관람 현장을 소개했다.

화성사는 당일 공산당에 대한 심층 교육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영화 '장진호 전투'를 상영했다.

영화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제작된 중국 영화로,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를 뒤바꾼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 고지 탈환을 위해 북쪽으로 진격하던 중 떼로 몰려온 중공군에 의해 교착상태에 빠져 결국 후퇴하게 된 이른바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했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30만 명 이상의 중공군에 의해 38선 아래로 후퇴했지만, 중공군의 피해는 3배 이상 컸던 것으로 알려져 전술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 받는다.

다만 중국에선 당 선전용으로 최근 해당 영화를 중고등학교와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관람을 독려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선전영화를 관람하는 중국 스님들의 모습.

화성사는 이날 공식 SNS 계정에 영화 '장진호 전투'를 관람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극적인 역사와 혁명을 일군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한다"며 "장진호 전투에 임한 선조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공산당과 중국 역사 의식을 고취시킬 살아있는 교재"라고 호평했다.

이에 지역 불교계에선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역 불교도들은 "부처님께 선 수행자들에게 육근청정(6근으로 저질러진 죄를 뉘우치는 것을 '육근참회'라고 하며, 육근참회를 통해 6근을 끊어내 깨끗해진 상태를 '육근청정'이라 함)을 갖고 정치를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며 "공산당 수업은 공산당원들만 참석해야 하는 수업이다. 그런데 승려들에게 공산당 관련 영화를 보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교'를 공산당의 한 분파로 인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불만을 성토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일본 법문 그랑프리에 신청자 몰려

진언종 불교청년회
H1 그랑프리 화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법문. 일본의 젊은 스님들 가운데 가장 설법을 잘하는 스님은 누구일까? 10월 31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종파를 넘어 젊은 스님들이 모여 개최한 법문 대회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0월 30일, 일본의 나라시에선 젊은 스님들의 법문을 겨루는 대회, 'H1 법문 그랑프리 2021'가 개최됐다. H1이란 명칭은 일본어로 법문, 설법을 뜻하는 호와(法話)의 첫 글자와 최고를 뜻하는 숫자 1을 합친 것으로 '최고의 법문'이라는 뜻이다.

이 대회의 시작은 지난 2017년. 진언종 후잔파(眞言宗 豊山派)의 젊은 스님들 모임인 후잔파 불교청년회가 연수의 성과발표회를 겸해 2017년 개최한 'H-1 그랑프리 설법대결'에서 시작했다. 당시 교단에서 뜨거운 반향을 얻은 설법대회는 이후 종단 내의 이벤트로 자리 잡던 중 "종단간의 벽을 넘어선 대회가 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는 실행위원들의 발의로 종단을 넘어선 불교계의 행사로 이어졌다.



법문대회에서 1위에 오른 세키모토 와코스님(좌)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다나카 센쇼스님(우).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2018년 고베의 천년고찰인 스마데라(須磨寺)에서 시작된 대회는 세간의 뜨거운 주목과 호응에 힘입어 2019년에 다시금 개최됐다. 지난해에도 계획됐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 일본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실시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다시 열렸다. 실행위원회 측은 "코로나19가 여전함에도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다시 대회가 재개됐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참가자를 공모했고, 사찰이 아닌 장소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8팀 9명의 스님들이 출전했다.

실행위 측은 "법문대회는 각 종단이 주장하는 종지의 우열을 가리거나, 자신의 학식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다. 자비와 공생의 불교정신과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실제 우승자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도 실행위는 "법문의 내용과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다시 이 스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가에 점수가 주어진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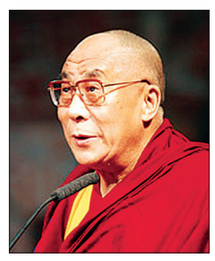
나라시의 나라 100년 기념회관에서 열린 대회에는 심사위원을 포함 750여 명의 관객들이 몰렸다. 대회는 또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각 팀은 10분간의 법문을 설하고, 각 법문 후 심사위원과 관객들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채점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심사위원에는 일본에서 종교학을 연구하는 독일출신 기독교 목사인 헤르만센 박사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투표결과 1위에 오른 스님은 융통염불종의 세키코토 와코 스님. 와코 스님은 불단에 공양하는 꽃이 시드는 것을 예시로 법문을 펴쳤다. 스님은 "불단의 꽃이 처음엔 화려해도 끝내 시들어 치워버리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며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소중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중국, 다문화 이해하지 못해"

"시진핑 만날 계획 없다" 재차 밝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86 · 사진)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중국화' 정책에 재차 쓴소리를 남겼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11월 11일 일본 도쿄의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회를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성향은 사람들에게 분명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이나 불교 국가인 대만 간의 '불화' 정치에 휘말리기 보다는 현재 머물고 있는 인도에 계속 있길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 같은 심경을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지역적 · 정치적 어려움에 연루되고 싶지 않지만 대만과 중국이 형제자매처럼 지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황이 꽤 복잡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만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중국은 공산당 하에 모든 종교 · 문화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이른바 '중국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티베트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달라이라마를 핍박하며 10년 이상 달라이라마 등 티베트 불교인들과 일절 접촉하지 않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대한불교 연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지 명

사서실장 현월 호계원장 범정 포교원장 정각 문화원장 삼공
감찰원장 승훈 교육원장 법성 법사원장 덕행 기획원장 지호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 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총무원장 : 지명 혜광 HP : 010-7109-3111
총 본 산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65-11 전화 : 054-481-3110 팩스 : 054-481-3123

문화관광부 등록 종단임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 빙의치유 , 천도 / 전문상담 합니다! ▣ 신기운 제거및 차단, 벗어나기 최고! 전문상담 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 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 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 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악몽자주꿈,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 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빙의천도. 신기운 다스림은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 올바른 신심(信心), 부처님 법에 대한 확고한 법력(法力)을 갖추어 정법(正法)으로 영가 중생 제도 원력(願力)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